

2024년 2월 4일(주일) 제1668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2024 청년부 필리핀 비전트립 파송식 오늘 찬양예배 시



우리 교회는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2024 청년부 필리핀 비전트립팀(팀장:유충기 장로) 파송식을 갖습니다.

2024 청년부 필리핀 비전트립팀은 2월 8일(목)에 출발해서 필리핀 불라칸 바티아 지역에서 박종민 선교사를 도와 도시 빈민 어린이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펴고 2월 13일(화)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많은 사역을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하고 건강과 치안 등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팀원들은 총 18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팀장:유충기 장로 지도:현종필 목사
강석범 고려화 권소희 박성진 박윤호 소준
송미정 유성걸 유승현 유은경 이요한 장윤기
장해라 장해운 조재석 채승호(가나다순)

2024년도 교구위원회 청지기 수련회

오늘 오전 11시, 602호

2024 교구위원회(위원장:노제현 장로) 청지기 수련회가 오늘 오전 11시에 602호에서 열립니다. 대상은 교구위원회 섬김일꾼으로 각 교구의

부교구장, 간사, 다락방 리더들입니다. 교구의 일꾼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4 상반기 장학생 선발

신청 마감 : 2월 16일(금)까지 / 사무국으로

서울교회 장학회(회장:오윤걸 장로)는 2024 상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장학생은 신앙생활에 모범적이며 교회봉사와 청년부에 출석 중인 대학생으로 봉사부서와 청년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또는 신앙 간증문,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2월 16일(금)까

지 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부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2월 25일 저녁 찬양예배 시에 있을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은 전원 참석하여야 합니다.

한가정한선교사 후원자

김석봉·박동희(1/2) 정치은·김영현(1) 유명석(1/2) 전광영·김인숙(1/2) 임우택·김정숙(1/2) 정철웅·오선혜(1) 최종금(1/2) 이태승·정진영(1/2) 김지수·김순진(1/2) 김세철·신아령(1) 오명걸·이수민(1) 오유준(어린이) 오유주(어린이)

농어촌100교회 후원자

정치은·김영현(1) 오명걸·이수민(1) 김세철·신아령(1) 정철웅·오선혜(1/2) 이홍기·이옥희·이승준(1) 김영희·이현정(1/2) 장창수·박혜정(1/2) 정현구·최복희(1) 전광영·김인숙(1/2) 장윤기·노애리(1)

Vision2030 후원자

김영희·이현정(2) 김지수·김순진(1) 전홍·김인아(1) 류장렬·조순엽(2) 오명걸·이수민(1) 이선희5(1) 이홍기·이옥희·이승준(3) 임우택·김정숙(2) 장윤기·노애리(1) 장해라(1) 장해운(1) 장창수·박혜정(1) 전광영·김인숙(5) 전용순(2) 정철웅·오선혜(1) 정치은·김영현(2) 정현구·최복희(3) 진돈·김경희(1) 유미영(1) 진찬옥(1) 진영민(1) 진영호(1)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사라의 정원'에 놀러오세요!

사라전도회(회장:김인숙 권사)는 그동안 운영했던 9층 소재의 나눔의 집을 정리하고 성도님들이 차 한 잔 마시며 성경도 읽고 교제도 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개장은 이번 주 수요일 예배 후에 합니다.



2024년 신앙강좌부 개강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 개강:2월 4일(주일)
- 시간:주일 12:15-12:50
- 장소:802호실
- 담당:양정호 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교회사및역사신학전공)
- 신청:김동진 은퇴안수집사
(신앙강좌부 부장:010-5308-1974)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오원준 감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김예준 김재용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어디서 오셨습니까?

(행 5:33-42)



손달익 위임목사

우리가 자신의 뿌리를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출신을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리마대 요셉은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을,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마을의 마리아를, 구레네 시몬은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마 21:25)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가 세속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물으신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

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출신 지역으로 비하하고 직업으로 비하했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가르치고 행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 받은 존재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성전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두개인들에 의해 잡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들이 밤에 그들을 옥에서 이끌어내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성전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던 사도들은 다시 잡혀 정식으로 공회 재판에 받게 됩니다.

1. 죄 사함의 진리

사도들을 향한 논란의 핵심은 죄 사함에 관한 논리입니다. 우선 이 논쟁의 장소가 성전이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성전이였고 성전의 최고 기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궁극의 목적은 죄를 사함 받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들이 배우고 실천한 죄 사함의 길은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주장하는 죄 사함의 길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30-31절)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양과 소를 잡아 피 흘려 속죄제를 드리고 죄 사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제사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위한 다른 길이 제시되면서 제사도 필요 없고 제사장들은 할 일이 없어지고 성전은 그 중요성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도들을 가두고 위협하고 저지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때 가말리엘이 나섭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며 이 사상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여기 초라한 갈릴리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면 어찌하려는가?’ 그의 설득은 이 상황의 중재를 위한 것이지만 그의 말에는 깊은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요 그의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역사는 뒤집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요 1:12-13).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요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2. 신앙과 양심을 따라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사도들을 위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견지 못하던 사람을 견제 한 이후부터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던 사도들을 향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위기를 느낀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위협하면서 더 이상의 전도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엄청난 압박과 명령 앞에서 신앙과 양심을 따라 보고 듣고 믿는 대로 진실을 말할 뿐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양심을 속일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공회에서의 재판에 대해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성전제사의 무용론을 주장하며 이제는 새로운 죄 사함의 길이 열렸다는 사도들의 주장이 성전주의자들인 사두개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으나 바리새인들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생각을 달리하면서 균열의 조짐을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온건주의자들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 구원의 주님이시며 우리는 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그들을 여러 방법으로 돕고 지키시며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당하여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당하여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3. 중단 없는 헌신

공회에서 채찍질 당하고 위협 받고 풀려난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그들의 명령에 전면 불복종하면서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표적이 되어 은둔해야 할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는 오히려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흩어진 성도들을 돌보는데 전력을 다하는 멈추지 않는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사역의 중단이라는 요구와 위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5). 이 말씀은 당시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각종의 유혹과 박해가 몰려올 때 어떤 상황 중에서도 모임과 전도와 선행을 중단하지 말자는 다짐과 각오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히 10:37-39)고 했습니다.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엄습해도 ‘조금만 더 견디면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온다. 여기서 물러서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모든 교회들은 멈추지 않는 신앙적 투쟁과 영적 순례를 이어왔고 그런 교회들에 의해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금년에는 좀 쉬자, 내년에는 잠시 멈추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피곤하다, 힘 든다,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등의 생각이 우리를 멸망으로 몰고 가려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의 은혜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따라 처신하고 지속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며 가야 할 길입니다.

서울교회 비전트립 23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 교회의 비전트립 파송은 2001년 여름 태국 치앙마이가 처음이었습니다.

비전트립은 2000년 말 대치동 새 예배당 입당을 기념한 '입당 감사 10대 행사' 가운데 하나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제1기 단원은 팀장인 고 박철훈 장로님과 고경선 지도목사를 포함한 27명이었습니다. 2001년 4월부터 15주간의 집중적인 선교훈련과 기도회를 갖고 8월에 10박 11일의 일정으로 태국 치앙마이 산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2015년까지 매년 10개국에 17회에 걸쳐 비전트립팀을 파송하였으며 2016년에는 비전트립 파송 지역이었던 방글라데시 다카에 IS의 테러로 인한 치안 불안 등의 문제로 취소되었습니다. 당시 현지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테러범과 단체를 색출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약 12,000여 명을 검거하였고 외국인 출입국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2016 방글라데시 비전트립팀(팀장:정치

은 안수집사)은 출발도 못하고 2016년 7월 9일(토)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이후 교회의 혼란과 코로나 사태로 멈췄던 비전트립이 2024년 청년부를 중심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서울교회의 비전트립 역사는 이 청년들이 써 내려갈 페이지들입니다. 현재는 비어있는 이 페이지들을 우리의 청년들이 은혜롭게 써 내려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유은경 집사(편집부)

<서울교회 비전트립 파송지역>



- '01년 : 태국
- '02년 : 몽골
- '03년 : 캄보디아
- '04년 : 방글라데시
- '05년 : 동아시아
- '06년 : 카자흐스탄
- '07년 : 이스라엘
- '08년 : 인도
- '09년 : 캄보디아
- '10년 : 말라위
- '11년 : 방글라데시
- '12년 : 인도네시아
- '13년 : 카자흐스탄
- '14년 : 방글라데시
- '15년 : 미얀마(동계) 인도(하계)
- '16년 : 미얀마(동계) 방글라데시(하계) 테러로 취소됨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합니다



권소희 권사
(청년부 부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영롱한 아침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필리핀으로 비전트립을 떠납니다. 설 연휴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모처럼 휴식하며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 누리고 싶을 텐데 주님의 지

상명령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을 보시옵소서.

작년 봄에는 선교에 대한 소망을 품고 3개월 동안 주일마다 늦은 밤까지 카이로스 선교 교육 훈련을 받았고, 올해는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기도로 준비하며 행함으로 실천하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아직도 머리에 이가 있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현지 아이들의 청결을 위해, 학비가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소망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잠에서 단잠 이루도록 포근한 장판을 깔아주기 위해..... 그 무엇보다도 크신 주



님 사랑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찬양과 영혼의 양식 말씀을 가득 품고 주님만 의지하며 갑니다. 이 땅에 허락하신 주님의 축복과 평안을 필리핀 땅에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정성 어린 손길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있음을 흐뭇하게 보시옵소서. 커피 한 잔 값으로 5만 원, 10만 원을 선뜻 후원하시고, 단골손님처럼 주일마다 선교후원의 발길을 아끼지 않은 모든 교육부서와 성도님들의 따뜻한 눈빛을 마음 깊

이 간직합니다. 비스킷 하나에 감사하며 고사리 손으로 정성껏 모금함을 채워준 세 살 아기까지 감동의 물결이 만나할 가득 웃음 짓게 하였습니다. 이 웃음을 시작으로 다시금 서울교회에 선교의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블라칸 바티아의 300명 아이들에게 힘찬 희망의 날갯짓이 되어줄 곱게 접은 옷과 수건들이 헌옷 수거함에도 가득했습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앞에서 인도하시는 참 좋은 주님을 300명의 아이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비전트립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위로와 소망의 빛이 되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강한 팔을 의지하는 우리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과 사랑의 선교가 되도록 성도님 모두의 기도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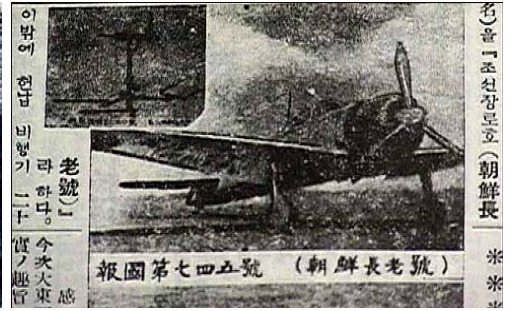
교회의 재건과 친일 청산의 실패



1945년 9월 2일, 일본 외무장관 시게미츠 마모루가 USS 미주리 (BB-63) 선상에서 미 육군 중장 리처드 K. 서덜랜드가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 항복 문서에 서명.



1943년 5월 7일 일제의 강압에 의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해산되고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이 출범



일본군에게 군용 비행기까지 헌납했던 일본기독교조선교단



반민특위의 재판 모습



정인과



전필순



김길창



정춘수



양주삼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을 선언하면서 한국은 해방되었다. 해방을 맞이한 한국에서 교회에 다양한 책임이 주어졌다. 무너진 교회 조직과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일은 물론,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을 기독교의 바탕 위에 세우는 일 역시 한국의 근대화와 민족운동에 기여해 온 교회에 주어진 책임이었다. 그 중 시급한 것은 일제 말 통폐합된 교회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해방의 시점에 한국에 남은 유일한 교단은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이었다. 이 교단의 지도자들은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했다. 하나의 교회는 내한 선교사들이 초기부터 꿈꿔온 일이었다. 비록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기왕 하나의 교단으로 일체된 교회가 다시 쪼개지는 일은 아무래도 아쉬운 일이었다. 그리고 국가 재건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김구, 김규식, 이승만 등이 모두 기독교 신자인 상황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교단으로 남아 최대한 세력을 크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다.

교단의 임원들은 교단 명칭을 조선기독교단으로 바꾸고 1945년 9월 8일 남한 교회들의 대회라는 뜻의 남부대회를 소집했다. 장로회와 감리회의 대표들이 참여한 이 대회는 시작하자마자 감리회의 대표들이 감리회를 재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퇴장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다. 이에 11월 27일부터 30일 범교단적인 기독교조선남부대회가 다시 개최되었다. 일본기독교조선교단에 참여했던 친일인사들이 다시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어

임시정부 지지, 선교사 내한 요청, 트루먼 미국 대통령에게 조선의 자주독립 진정 등을 결의하고 교단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감리회가 교단의 재건을 선언하였을 뿐 아니라 장로회에서도 다시 원래의 장로회 조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힘을 얻어 1945년 11월에 경남노회, 12월에 전북노회가 재건되었다. 해방 직후 북한 지역에서 내려온 교계 지도자들도 남쪽 교회만의 통합 움직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남부대회는 점점 친일 인사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모임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결국 1946년 4월 30일에서 5월 2일에 열린 제2차 남부대회가 '각 교파는 각자 성격대로 활동기로' 결의하자 통합을 유지하려던 시도는 좌절되었다.

교회 재건 움직임은 남부대회가 유지되던 동안에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감리회는 1945년 12월 감리교회유지위원회(재건과)를 조직하고 친일 교계지도자들이 주도했던 1939년 이후의 감리회의 역사를 부정하고 감리회 재건에 나섰다. 반면 친일 인사들은 1946년 9월 특별총회를 열고 재건파와 대립하는 복흥파를 조직하였다. 초기에는 교권을 유지하고 있던 복흥파가 우세를 보였지만 월남 교역자가 늘어나고 선교사들이 재입국하면서 점점 재건파가 힘을 얻어갔다.

장로회도 1946년 초에 남한 지역의 노회 재건을 완료하고 5월 남부총회를 개최했다. 1947년에 열린 제2차 남부총회는 제33회 총회로 규정되었다. 이는 1946년의 남부총회를 제32회 총회로 셈한 것으로 1942년 제31회

총회 이후 조직된 일본기독교 조선장로교단(1943년 조직)의 역사를 한국 장로교회의 역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교단의 재건이 일단락되자 자연스럽게 친일 청산이 교회의 과제로 떠올랐다.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도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설치하였다. 반민특위에는 여러 명의 교계 지도자들이 회부되었다. 장로회에서는 적극적인 친일 행각으로 '조선판 가룟유대'라는 별칭이 붙은 정인과를 비롯하여 전필순, 김길창 등의 목사가, 감리회에서는 감독을 지낸 정춘수, 양주삼 등이 구속되었다. 그러나 친일 인사들을 처벌하는데 소극적이었던 이승만의 정책으로 반민특위가 해체되자 모두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기소된 교계 지도자들이 법의 심판을 벗어났다고 하여 그들에 대한 비판이 잠잠해진 것은 아니었다. 감리회에서는 재건파가 복흥파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감리회 친일의 상징과도 같았던 정춘수 목사는 자신에 대한 교계의 공격이 심해지자 진짜 구원은 천주교에 있다고 선언하고 천주교로 아예 개종해 버렸다. 장로회에서는 신사참배 거부운동으로 투옥되었다가 해방을 맞아 석방된 이른바 출옥성도들이 친일 교계지도자에 대해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우상숭배인 신사참배를 주도한 교계 지도자들의 자숙과 회개를 통해 교회를 정화하고 재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출옥성도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로교회의 분열로 이어지고 말았다.

설날,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온 가족이 모처럼 한 자리에서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설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족 주심을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전도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예배 모범을 제시합니다.

예배 순서

목도			인도 : 가족 중 어른
성시	시편 102편 25-28절	다함께
찬송	550장(통248장)	인도자
기도			다함께
성경봉독	시편 1편 1-3절	가족 중(다함께)
메시지	"복 있는 사람"	인도자
찬송	301장(통460장)	다함께
주기도			다함께

성경:시편 1편 1-3절

-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 2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설 명절의 독특한 풍습이 있습니다. 서로 덕담을 나누는 것입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따르면 어른들은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승진하시오’, ‘돈을 많이 버시오.’ 등의 덕담을 하였다고 합니다. 『열양세시기(洙陽歲時記)』에서도 설날 기간 동안 아는 사람을 만나면 ‘새해 안녕하시오.’라고 말하며 서로가 올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살피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현대 시대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며 한 해 원하는 소원 이루고 복을 받으라고 설 인사를 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이 명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누구인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행위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는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와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복된 사람은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묻고, 의뢰하는 삶을 사는 삶입니다. 또한 말씀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한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길 바랍니다.

1. 악인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

먼저, 1절에 복된 사람이 피해야 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입니다. 이 세 모습은 인간의 죄의 모습이 점진적으로 더 악화되고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죄의 동기는 모방입니다. 악인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죄인의 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그곳에 발을 깊이 담그고 서서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오만한 자들은 자리에 눌러앉아 악을 주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악의 길로 끌어 들이는 모습입니다. 복된 사람은 이 악인의 자리를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악인의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돌이켜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사람 되길 바랍니다.

2.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2절에는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3.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이 받을 축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생존을 위해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생존에 필요한 물을 무한정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아 풍성하고 열매 맺으며 형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 모든 일에 실패가 없이 성공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에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린 사람은 렘 17장 8절 말씀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님께 우리 삶의 뿌리를 둔 사람은 거센 바람이 휘몰아쳐도 흔들리지언정 뽑히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악인의 자리에서 떠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진정한 복된 사람으로 거듭나는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섬김위원 추가 임명

· 권사회 회장 - 최종희 권사

새가족부 교육장소 변경

새가족부 교육이 오늘부터 602호에서 202호로 변경됩니다.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 ◇ 전도사
박미라
-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양정호
- ◇ 시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연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minster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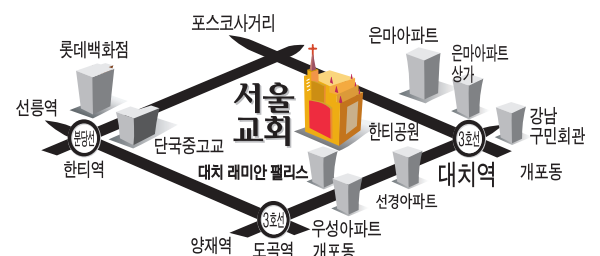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식사 제공



- 2교구
김영표 안수집사 권소희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떡제공



- 1교구
홍승전 은퇴안수집사
황정임 은퇴권사 가정
(외손녀 노서진 35회 세계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 (World Miss
University) 한국대표 선발대회에
서 모바일 투표1등상, 경제 포럼
상 수상을 감사하며

2024 겨울성경학교·수련회 일정

부서	주제	주제 말씀	일정	장소
영·유아부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	롬 10:9-10	2월 24일(토)-25일(주일)	서울 교회
유치부	뜻을 세운 아이들	롬 12:2	2월 24일(토)-25일(주일)	서울 교회
유년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롬 12:1	2월 24일(토)-25일(주일)	서울 교회
초등부	나는 믿음의 사람	히 11:1	2월 23일(금)-24일(토)	서울 교회
고등부	하나님의 비전을 소망하는 고등부	히 11:1-2	3월 1일(금)-2일(토)	서울 교회
사랑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복	마 5:1-12	2월 17일(토)-18일(주일)	서울 교회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자	요일	1년 1독	맥체인 성경통독			
2월5일	월	출 34-36	창38	막8	눅4	롬8
2월6일	화	출 37-39	창39	막9	눅5	롬9
2월7일	수	출 40	창40	막10	눅6	롬10
2월8일	목	레 1:1-6:7	창41	막11	눅7	롬11
2월9일	금	레 6:8-8:36	창42	막12	눅8	롬12
2월10일	토	레 9-11	창43	막13	눅9	롬13
2월11일	주일	레 12:1-14:32	창44	막14	눅10	롬14

성경일독 진도표와 구약과 신약, 시편을 구속사적으로 연결하여 1년에 구약 1독, 신약과 시편 2독을 하는 맥체인방식 성경읽기표를 함께 게재합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족과 이웃, 사회에 흘려보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 한가정한선교사·농어촌100교회·Vision2030 후원운동에 온 성도가 참여케 하시며,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2024 청년부 필리핀 비전트립이 은혜 중에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소서
- 이 민족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게 붙드시고, 복음화된 통일 조국으로 전진하도록 이 땅을 통치하소서